

등록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록

1. 일 시 : 2012.12.24.(월) 15:00~16: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 : 교직원대표 : 송현호, 김민구, 박철균 위원
학생대표 : 허무관, 성하승, 이송희 위원

관련전문가 : 배수환 위원

불참위원 : 이준섭, 정찬빈, 배광옥, 황민섭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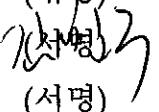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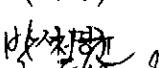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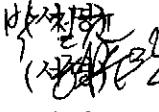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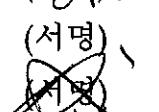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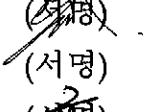
4. 회의내용

- 학생대표는 학교가 본예산 자료를 본 회의에서 검토하기 전에 등록금 인상안으로 작성한 자료였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다.
- 교직원대표는 학생대표의 지적을 공감하며,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가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1% 인상하였음을 말하다.
- 학생대표는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못하는 것이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교직원대표는 현재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못하는 것에는 동감하나, 이를 직접적인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학생대표는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본교에 대한 병원의 지원이 없어, 학교도 병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 그리고 예산 총 규모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학교가 캠퍼스플라자나 그 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교직원대표는 학교가 2012년 8월에 외부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재원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대표는 학교의 여러 사업 중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설공사나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감안하여 등록금 인상률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또한 단과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대해 문의하다.
- 예산팀에서 매년 단과대학별 배분예산제도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희망장학 배정(15%)이나 건축기금 적립(10%) 외에는 단과대학의 자율경영제도 시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대표가 학교의 책임운영부서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에서는 책임운영부서의 경우 자체 수입의 30%를 학교에 간접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운영수지분석을 통해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운영부서의 자율경영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대표가 2013학년도 등록금은 5%인하안을 제시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적절치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차후로 미뤄야 함
 - 본부와 단과대학에서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야 함
 -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함
- 교직원대표가 학교도 교직원의 인건비가 최근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공사나 장비 교체 등은 불가피한 것임을 말하며, 다음 회의시에는 학생들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
- 다음 회의시에도 금번 회의자료에 대해 추가 질의 응답을 실시하기로 하며, 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해 시설팀장이 출석하여 상세 설명을 하기로 하다.
- 5차 회의는 2012.12.26.(수) 15시에 개최하기로 하다.

2012. 12. 2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송현호	
위원	김민구	
위원	이준섭	(서명)
위원	박철균	
위원	허무관	
위원	황민섭	
위원	성하승	
위원	이송희	
위원	정찬빈	
위원	배수환	
위원	배광옥	(서명)